국방일보 `17. 3. 8(수)

학자금 지원 '중복 수혜' 관리한다

예산 절약·반납 불편 해소

국군재정관리단은 최근 군인·군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호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학자금 대부와 호국장학금 지급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중복수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학자금 대부와 호국장학금 중복수혜에 따른 초과금액을 회수하느라 재정관리단은 물론 수혜자 역시 불편이 컸다. 지난해 회수한 중복금액만 총 29억8000만 원, 횟수는 3700여 건에 이른다. 또 중복수혜가 발생하게 되면 학자금 대부와 장학금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런 문제점이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호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 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모두 소관 처리했지만 이제는 호국장학재단에서 자금과 명단을 넘겨받은 재정관리단이 중복수혜자들의 초과 부분을 사전에 파악, 중복수혜 부분에 대한 대부 원금을 상환한 뒤 차액만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관리단은 이를 통해 중복수혜에 따른 예산을 절약하고 중복수혜자들은 개별 대부금을 반납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재정관리단 관계자는 "올해 안에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교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국가장학금, 민간·교내 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의 중복수혜분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